

## 말의 전쟁

이사야 36:16-21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잇는 국제 간선도로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요단 동편 고원을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King’s Highway)’이고, 다른 하나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해변 길(Via Maris)’입니다. 두 길 모두 성경의 역사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던 때, 모세는 아모리 왕 시혼에게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 리이다”(민 21:22). 여기서 말하는 ‘왕의 큰길’이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이 길은 다메섹에서 시작하여 바산과 길르앗을 지나 에돔과 아라비아로 이어지는 중요한 내륙 교통로였습니다.

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영화롭게 될 갈릴리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사 9:1). 여기서 언급되는 ‘해변 길’이 바로 Via Maris입니다. 이 길은 다메섹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져 갈릴리와 므깃도, 갈멜 산 일대를 지나 블레셋의 해안 평야를 따라 애굽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대의 상인들과 군대는 이 길 위를 끊임없이 오갔고, 제국들의 발굽 소리는 늘 이 길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앗수르 군대 역시 이 해변 길을 따라 남하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중해 평야의 넓은 길을 이용하여 병거와 기병, 보급 부대를 효율적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비록 율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직선거리로는 가까웠으나, 대군이 지나기에는 지나치게 험준한 산악로였습니다.

율바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의 바다 관문 역할을 하던 항구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이 항구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역대하에는 두로 왕 히람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율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재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대하 2:16). 페니키아 사람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베어낸 백향목은 뗏목으로 엮여 지중해 물결을 따라 율바까지 운반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재목들을 다시 육로로 예루살렘까지 옮겨야 했습니다. 성경이 굳이 “올리소서”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방향 표현이 아닙니다. 욥바는 해수면 가까이에 자리한 항구 도시였으나,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미터의 산악 도시였습니다.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곧 끝없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메마른 와디를 지나고, 굽이치는 산길을 넘어야만 비로소 예루살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었지만, 결코 가장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위한 백향목은 결국 그 험한 길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인간의 수고와 헌신이 언제나 ‘올라가는 길’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허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다 산지는 병거와 기병 중심의 앗수르 군대에게 결코 만만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드넓은 평야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병거대와 기병대를 이끌고, 적이 어디에 매복해 있을지 모르는 험준한 산악 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큰 위협이었습니다. 좁고 굽은 산길에서는 병거의 기동력이 무력화되고, 대군의 보급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우회하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하나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 십사년에 앗수르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니라](#)”(사 36:1)

앗수르 군대는 특히 Lachish 공략에 큰 힘을 쏟았습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가는 유다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Nineveh에서 발견된 산헤립 궁전 부조에는 라기스 공성전 장면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거대한 공성추가 성벽을 들이받고, 사다리를 탄 병사들이 성 위로 기어오르며, 화살과 돌이 빗발치는 처절한 전투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전 기념이 아니라, 그만큼 전투가 치열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앗수르 역시 적지 않은 희생을 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친 라기스 공성전 속에서 산헤립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Samaria조차 함락시키는 데 무려 3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수도 Jerusalem은 사마리아보다 더 견고하였습니다. 더욱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보다 훨씬 담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산헤립은 계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희생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칼과 창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기를 꺼내 듭니다.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랍사게를 보냅니다. “[앗수르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사 36:2). 랍사게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앗수르의 고위 관직명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를 술 맡은 관원장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발견된

앗수르 문헌들에 따르면 그는 제국의 서방 영토를 관리하던 고위 행정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랍사게는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였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유브라데 강 서편 지역에서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산헤립은 단지 외교관 한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군을 함께 딸려 보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면서 동시에 무언의 무력 시위였습니다.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군대가 곧 너희 성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침묵의 위협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무력 시위는 종종 실제 전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Matthew C. Perry 제독 역시 무력 시위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캘리포니아까지 진출하였고, 태평양을 건너 중국과 교역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착지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막부는 200년 넘게 쇠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외국에 제한적으로 개방한 항구는 Nagasaki 정도였으며, 그마저도 네덜란드와 청나라 상인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은 증기 군함 네 척을 이끌고 에도(오늘날의 Tokyo)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일본인들은 검은 연기를 뿜으며 움직이는 거대한 철제 군함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노를 젓지 않아도, 산처럼 거대한 배가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검은 배(黒船)”라고 불렀습니다. 페리 제독은 함포 사격으로 서양의 압도적인 화력을 과시하였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뒤 “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함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결국 일본 막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개항하게 됩니다. 산헤립이 랍사게와 대군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세운 것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아직 성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눈앞에 늘어선 대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앗수르는 칼을 뽑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산헤립이 선택한 “말의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에 맞서 왕궁의 핵심 인물들을 협상 대표로 내보냅니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말은 자 엘리 아김과 서기관 썸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사 36:3). 히스기야가 세 명의 대표를 보낸 이유는 단순한 예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산헤립 역시 랍사게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앗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왕하 18:17상반절). 앗수르는 군사 책임자와 궁정 관리, 외교 책임자를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절단이 아니라 제국의 위엄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는 통역을 세우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직접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나”(사 36:4).

랍사게의 말은 단순한 외교 답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롱이었고, 심리전이였으며,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먼저 그는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을 비웃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찢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사 36:6). 랍사게의 말은 모욕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뼈아픈 진실이기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앗수르에 맞서기 위하여 애굽과 손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많은 은금과 보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오자 애굽은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하였습니다. 의지하던 지팡이는 썩은 갈대였고, 붙드는 순간 오히려 손을 찢르는 상한 막대기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어 랍사게는 히스기야와 유다 군대를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탈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사 36:8). 이 조롱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유다는 군사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사 30:16). 당시 앗수르의 군마는 유다나 애굽의 말보다 훨씬 크고 강하며 빨랐습니다. 평야를 질주하는 앗수르 기병대는 고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많은 유다 군사들은 이미 흠어졌고, 도망하였으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랍사게의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내가 말은 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탈 사람도 없고, 운용할 능력도 없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벽 위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다 측 대표들은 다급히 요청합니다. “이에 엘리아김과 셉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사 36:11). 당시 아람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국제 외교 언어였습니다. 각국의 관리들과 외교관들은 아람어로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다의 대표들 역시 아람어를 알고 있었기에, 백성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용히 외교 언어로 대화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한 랍사게는 그 요청마저 비웃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사 36:12).

랍사게는 의도적으로 더 큰 소리로 히브리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협상단만이 아니라 성 위 백성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 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는 것이었습니다. “곧 포위가 시작될 것이다. 식량은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의 배설물까지 먹게

될 것이다.” 랍사게는 칼보다 먼저 두려움을 성 안에 들여보내고 있었습니다. 앓수르는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전쟁은 단순한 군사 전쟁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랍사게는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 위에서 있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차 그들이 맞이하게 될 처참한 운명을 노골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사 36:12). 이 말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포위전의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수의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포위전이었습니다. 성문을 억지로 부수기보다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식량과 물의 공급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성 안의 곡식은 바닥나고, 기근은 점점 사람들의 이성을 삼켜 갑니다. 처음에는 가축을 잡아먹고, 그다음에는 풀뿌리와 가죽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무너뜨리게 됩니다. 북왕국 Samaria가 포위되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차마 눈 뜨고 읽기 어려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왕하 6:29)

얼마나 기근이 극심하였으면,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포위전은 단순히 육체를 굶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갑니다. 그는 인육을 먹는 것보다도 더 인간의 존엄이 붕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로 자신의 배설물을 먹고 자신의 소변을 마시는 상황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가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Ezekiel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겔 4:12). 사람의 배설물인 인분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 장차 임할 심판을 보여 주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를 직접 설명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 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겔 4:13). 곧,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누리던 거룩과 존엄이 무너지는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지자라 하여도 그 명령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

다. 에스겔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 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겔 4:14).

에스겔은 율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인분으로 떡을 굽는 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영혼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분 대신 쇠똥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겔 4:15). 고대 근동에서는 실제로 마른 쇠똥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축의 마른 분뇨를 태워 불을 피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부정함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랍사게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곧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잃게 될 것이다”라는 잔혹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믿음을 붕괴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던 Ezekiel 선지자조차도 사람의 인분으로 불을 피워 구운 떡을 먹으라는 말씀 앞에서는 떨며 간구하였습니다. 인분 자체를 먹으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냄새가 났 떡을 먹으라는 명령이었음에도 그는 감당하기 어려워하였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백성들이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랍사게의 위협은 단순한 군사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와 수치를 건드리는 잔혹한 심리전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항전 의지를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공포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이어 달콤한 유혹을 꺼내 듭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사 36:16).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조금 전까지는 “너희는 곧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던 자가, 이제는 “항복만 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시원한 우물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절망 다음에 안락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먼저 두려움을 심고, 그 다음 거짓 평안을 약속합니다. 랍사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포로가 되면 죽임당할 것이라는 두려움마저 없애 줍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사 36:17). 마치 젓과 꿀이 흐르는 또 다른 가나안을 주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약속이었습니다. 앗수르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주시키는 나라가 아니

었습니다. 정복한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고 흡어 버리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평화의 언어를 입고 있었지만, 실상은 굴복과 멸망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랍사게는 하나님까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사 36:20). 이것이야말로 그의 진짜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앗수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으니 예루살렘도 당연히 무너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눈앞의 군사력과 제국의 힘만 보았지, 살아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루살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다”(사 36:21).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성 위에 서서 조롱과 협박을 듣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괜히 랍사게와 말싸움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와 끝없는 논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답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사탄은 대화 속으로 들어옵니다. 의심을 심고, 마음을 흔들고,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며 붙드는 사람에게 괜히 말을 섞는 순간 점점 말려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혹과 거짓말은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가장 믿음 있는 대답이 “침묵”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많은 군사들이 도망한 뒤였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랍사게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군대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달콤한 거짓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침묵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려움과 유혹의 말을 쏟아 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타협하면 편해진다”, “조금만 굴복하면 안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